

♥ 뉴욕의 한 택시기사

이 국을 여행하는 중에 들은 뉴욕의 한 택시 기사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의 차는 항상 깨끗하고 왁스칠이 되어 있다. 자기 차에 손님이 타면 다음과 같이 적힌 종이 한 장을 건네준다.

“안녕하세요? 저는 당신의 운전기사 000입니다. 당신을 목적지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제 시간에 모셔 드리겠습니다. 만일 당신의 여행을 좀 더 즐겁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매너에 놀라는 손님에게 그 기사는 일간 신문 두 가지를 내밀며 묻는다.

“오늘 자 뉴욕 타임즈를 읽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워싱턴 포스트를 읽으시겠습니까?”

그러면 대개의 손님들은 신문 값이 얼마냐고 묻는다. 그러면 “무료로 서비스 하는 것입니다” 고 상냥하게 웃으며 답한다. 기사가 다시 묻기를

“선생님, 선생님이 들으실 라디오 방송 채널이 여러 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중음악, 락, 클래식 중에 어느 편을 좋아하세요?
아니면 CD 중에서 고르시겠습니까?”

이때쯤 되면 손님들도 함께 즐거워진다. 택시에 앉아 일급호텔에서 받는 대우를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 이어서 기사가 말한다. “방해가 된다면 죄송합니다만, 가벼운 스낵을 좀 드시겠습니까?” 하고 잘 익은 사과, 오렌지, 바나나, 저지방 치즈, 과자 등을 채운 예쁜 바구니를 들어 보인다. 다른 택시를 탔을 때에 예상치 못하였던 친절에 감동한 손님들은 듬뿍 팁을 주고 내린다.

비록 택시를 몰아도 이런 서비스 정신을 지닌 사람은 성공하게 마련이다. 어느 직에 종사하던 이런 마음가짐을 갖도록 하자. 그러면 인생길이 열리가 시작할 것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리요
높은 위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무더기에서 드셔서
방백들 곧 그 백성의 방백들과 함께
세우시며...
(시 113:5~8)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예수님 안에 답이 있습니다(빌4:13) 갈보리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섬김과봉사 *의명성-명예
제 9권 23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7년6월 10일
☎ 369-5077 Howe St. City (Auckland Girls Grammar School Hall)		www.calvary.org.nz

◀하나님! 나의 하나님▶

十 거꾸로 된 일

“하람아! 밥 먹어라.” “제발 밥 좀 먹어라.”
우리 집에서 매일 들리는 소리입니다.
밥 안 먹으면 지 손해고.. 지가 배고플 것인데..
왜 부모가 애타 하는지 아시지요?
아이는 아직 무엇이 정말 유익한지 철이 없고..
부모는 그 아이의 장래를 진정으로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전도를 해보면..
똑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시고..
한 사람의 인생을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분이시며..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고..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여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게 하시기도 하는 분이신데..
이 사실을 사람들이 안다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 저를 제발
멸망에서 건져주세요.” 해야 옳은데.. 현실은 대부분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전도자들은 애타서..
“선생님! 제발, 믿으세요.”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으세요.”
애원하고.. 정작 구원받아야 하는 분들은 배짱을 내 밀니다.

우리 아들녀석, 지가 내 덕분에 먹고살고 있고..
밥 안 먹고 계속 배짱 부리면..
내가 저를 몇 일 굶겨 못 된 버릇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지가 나에게 “아버지 제발 굶기지 마세요.”
“밥 주시어 감사합니다! 자 알 먹겠습니다.”
날마다 복창해야 정상일 것인데..
이 세상엔 거꾸로 된 일이 종종 있습니다.

제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이치를 다 아시고..
당신은 아직 하나님의 호의를 거부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모르시기에 배짱을 부리고 계신 것이 아닐런지요?

주일 예배

(* 표에 있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함께하는 주일 예배 찬양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다같이
*찬송 Hymn	9장	다같이
*성시교독 Response Reading	20 (시편 91)	다같이
교회소식 Welcome & Announcements		인도자
찬송 Hymn	363장	다같이
기도 Pray		최득수 집사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마 28:18-20	인도자
성가대 찬양 Choir		나무십자가 성가대
설교 Sermon	가서 제자 삼으라	박성천 목사
찬송 Hymn	252장	다같이
헌금기도 Offering Pray		인도자
응답송 Response Song	여기에 모인 우리	다같이
축도 Benediction		이태한 목사

『교회생활』 2007 신앙생활 : 하루에 7분기도하기 매일 가족위해 5분 매일 교회위해 1분 매일 남을 위해 1분	『교회등록』 *3주간 예배, 찬교 참석 이후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십시오. *여러 교회를 다녀 보십시오. 그래야 신중하고 바른 판단이 됩니다
주일예배: 아동, 학생: 오후 1시 수요예배: 7:30 pm	새벽기도회: 금 5:50 청년부: 수요일 7:00

* 등록을 원하시는 새 교우는 예배후 새 가족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수요예배 장소변경 : 이번 주 수요예배는 학교사정으로 인해 Hall 아래층에서 드립니다. 주차장은 반드시 Gate 4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금주 새벽기도회는 종전과 같이 드립니다 : (금)새벽 5:50분
3. 구충제 판매 : Mate 선교회 후원을 위해 구충제를 판매 합니다
4. 6월 7월에는 학교 사정으로 인해 예배장소 변경이 있을 예정입니다.
5.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좌석은 가급적 앞자리와 가운데 부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착한 시인들 ▶ 향 수 -정지용-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이야기 지wmf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알록백이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물음을 우는 곳
그 곳이 참하 꿈엔들 잊힐리아

질화로에 재가 식어지면
비인 발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얽은 줄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짚벼개를
돌아 고이시는 곳
그 곳이 참하 꿈엔들 잊힐리아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향부로 쓴 화살을 찾으려 풀섬 이슬에 향추를
휘적시던 곳,
그 곳이 참하 꿈엔들 잊힐리아

전설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귀밑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아무렇지도 않고 예뻐 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아내가 떠가온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줍던 곳,
그 곳이 참하 꿈엔들 잊힐리아

하늘에는 성근 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서리 까마귀 우지짖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흐릿한 불빛에 돌아 앉아 도란도란 거리는 곳,
그 곳이 참하 꿈엔들 잊힐리아

성전건축헌금 지난주일: \$	총액: \$ 315,944.70
-----------------	-------------------

◆6월 예배위원◆

◆6월의 교회력◆

일자	기도	응답송	안 내
3	조용건		본당: 권사
10	최득수		
17	최재학		현관 : 장현중 정덕수
24	현석호		새교우: 이광희 이근평
01	고성일		운주야 장유진

	주 일	예배와 모임
3		구역예배
10		
17		여성교회 월례회
24		남성교회 월례회.